도난 독성도 · 신중도, '무상기증'으로 돌아왔다

조계종, 9월 6일 '도난 성보 환수 고불식' 봉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87 · 2000년 용연사 · 천은사서 도난
태고종 사찰 2곳서 기증받아 소장해
시 · 도지정문화재 지정 위한 조사서
도난 성보 확인돼… 단속반서도 조사

두 사찰 "도난 성보 가질 수야" 기증
재판없이 기증 형태로 환수된 첫 사례
조계종, 기증자 · 제보자 감사패 전달



조계종 총무원은 9월 6일 도난됐다가 환수된 대구 용연사 독성도, 천은사 도계암 신중도의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환수 불화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도난됐던 불화 2점이 본래 사찰로 환지본처됐다. 이 불화들은 도난 성보임이 확인되자 소장 사찰 측에서 무상으로 원 소장 사찰에 기증 의사를 밝혀 환수되는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9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성보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삼혜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환수되는 독성도와 신중도는 각각 1987년 8월, 2000년 10월 도난됐으며, 발견 당시 태고종 사찰인 부산 백운사(주지 대원)와 거제 대원사(주지 자원)에 각각 봉안돼 있었다.

환수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부산 백운사와 거제 대원사는 최근 해당 불화들을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했고, 조사과정에서 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불화들이 도난 성보임을 확인해 문화재사범단속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문화재사범단속팀은 해당 불화의 도난 및 입수 과정을 살피고 두 사찰과의 협의도 진행했다.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은 "문화재 지정조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도난 성보임을 바로 알아봤다.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DB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면서 "곧장 문화재사범단속반에 신고했고, 단속반에서 이후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 백운사에 소장됐던 독성도는 본래 대구 용연사에 봉안됐던 독성도로 1871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백운사는 해당 불화를 평소 교류가 있던 스님에게 2018년 입적하기 전 기증받아 소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 대원사가 소장한 신중도는 구례 천은사 도계암에 봉안된 것으로 조성 연대는 1897년이다. 화기는 출처가 기록된 부분만 의도적으로 훼손했으나 전체적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서울 종로구 가회동 명인박물관(관장 이무웅)으로부터 2019년 11월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독성도와 신중도가 도난 성보임을 안 부산 백운사와 거제 대원사도 크게 마음을 냈다. 백운사와 대원사 주지 스님들은 해당 불화가 도난문화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신앙의 대상인 탱화가 지금이라도 환지본처 돼야 한다. 앞으로 불교문화재가 도난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조계종 측에 무상 기증키로 했다.

부산 백운사 주지 대원 스님을 대신해 고불식에 참석한 태고종부산교구 총무국장 보신 스님은 "부처님의 성보가 도난됐다면 우주 끝까지 찾아가서 환지본처시키는 것이 사문의 의무"라며 "도난된 사실을 안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집을 나온 성보가 제자리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예경 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고불식은 헌향, 헌다,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환수 경과, 인사말, 축사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환지본처한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도난 성보를 종단에 직접 반환하는 첫 사례로, 도난 성보의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증의 형식으로 사찰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종단과 문화재청이 도난 성보를 환수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했던 결과이기에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아온 성보는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되찾고, 더불어 예경의 대상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성보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두 스님께서 무상 기증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면서 "두 스님의 큰 마음은 종파를 초월한 선행으로 빛나 한국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도난 문화재나 선의로 취득한 도난문화재라도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를 유도해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난 문화재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다양한 제도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이날 고불식에서 기증자인 부산 백운사 주지 대원 스님과 거제 대원사 주지 자원 스님, 제보자인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 공로자인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재사범단속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국여성불자회, 종령기구로 법적토대 마련

조계종 포교원, 시행령 입법예고
지원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회칙 및 임원구성 · 조직 등 명시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여성불자회 지원 ·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종령기구로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 보조금 등 운영예산 일부를 종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가운데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회칙을 토대로 한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9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를 비롯, 설립 후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종단의 지원 ·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큰 틀에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에는 전국여성불자회가 종령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임원 구성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 및 산하기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다. 조계종 여성신도들로 구성돼 종단 예산을 지원하는 조직인만큼, 종단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 · 유지하기 위한 토대다. 다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실질적인 운영은 회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전국여성불자회는 여성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종단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종단 외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교구 및 직능별 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리 △여성불교 전문지도자 발굴 및 연구 · 교육사업 △환경 · 가정 · 인권 등 사회공익 및 지원사업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불교문화 확산 사업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총재는 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감사로 조계종 신도자격을 갖춰야 한다.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또 전국여성불자회는 업무 및 회계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실무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운영 및 목적사업 진행 등을 위한 산하기구 설립도 가능하다.

수입은 종단 보조금과 임원 및 회원회비, 후원금 및 수익금으로 하며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령기구인만큼 포교원의 정기 감사 및 종무행정지도 의무도 갖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0일까지로,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환경연대 21주년 기념 후원 음악회

임현정 피아니스트 초청 공연
불교환경연대 로고송도 발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불교환경연대 21주년 기념 후원음악회의 일환으로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씨를 초청해 그린콘서트를 마련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해 본부지부 대표, 불교환경연대 회원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그린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21주년 기념식에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이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욱 튼실한 단체로 발돋움해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생태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불교환경연대 前 상임대표 법일 스님, 前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 정우식, 이봉규, 신동헌, 최경애 활동가를 비롯해 후원회원 대표 고명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팀장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접수

승려복지회, 10월 1일~31일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을 신청 받는다.

승려복지회는 9월 5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3항에 근거해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서류를 접수받는다"고 공고했다.

신청자격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는 스님이다. 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은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을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및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접수는 기간 중 재적 교구본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부터 1인당 최대 월 3만 6000원이 지원된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본사
智異山大華嚴寺

조 실 금성 명선 대종사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초암 덕문

신도회&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